

종로경제경관의 변화 - 상업경제에서 상징경제로

남기범*

“도심상업지역은 도시의 얼굴이다... 도심지역은 여행자, 도시 주민, 투자자에게 도시전체에 대한 첫인상과 가장 중요한 인상을 형성한다. 도시 주민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도시가 변모해 가는 이미지형성의 원천이 된다. 활력 있고 매력적인 도심은 도시의 구심점이며 도시민에게 있어서 근린지역의 지역사회보다 더 큰 도시사회에의 소속감을 부여하는 원천이 된다.” (Weaver and Duerksen, 1977, p. 61).

1. 도입

“아침이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가 저녁 때 일제히 흩어진다.”고 해서 ‘雲從街’라고 불렀던 종로지역은 지금도 서울경제활동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종로지역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조선시대의 주요 궁궐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탑골공원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고, 지금도 중앙정부의 주요 청사와 관련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포용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중추기능의 핵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종로지역은 서울의 심장부로서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심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인구 19만명에 주간 활동 인구가 약 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종로구, 1998). 반면에 도심의 고차기능은 강남지역과 교외의 대형 쇼핑센터에 내어주고 있으며, 재래식 가옥과 상가건물들이 현대식 고층 빌딩과 뒤섞여 있고, 오후가 되면 활동을 시작하는 노점상들은 차도와 인도의 폭을 절반이상이나 잠식하고 있어 무척 혼잡스럽다. 더구나 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도로와 도시의 기반시설들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제 노후화되어 기능의 재생이나 이전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종로의 경제기능은 이제 경쟁력을 잃고 강남과 신도시의 신상권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가? 도심 경제기능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재개발되어 2-3층의 건물군 곳곳에 30-40층씩 솟아올라 새롭고 포스트 모던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고층빌딩에 업무기능을 집중시켜 하얀 셔츠와 고급 핸드백을 가진 사람들의 일터와 장터로 변모해야 하는가? 종로 3가에서 동쪽으로 진행되는 전문상가로와 도심형 산업지구는, 구조적으로 진화하지 못하여 기능적, 물리적, 심미적으로 부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도심의 주요한 간선도로인 종로길은 막대한 교통수요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 때문에 더 이상 그 장소에 속해서는 안 되는 부적격 기능인가?

이 글은 앞에서 제시한 종로의 경제기능과 경제경관의 문제점들에 대한 토의와 논의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구역상 종로는 종로가로의 상가 지역 뿐만 아니라 북악산아래의 평창동에서 동대문의 창신동에 이르는 24km의 넓은 지역이지만 일상 경제생활에서 종로로 인식되고 있는 공통분모로서의 '종로'는 종각에서 동대문까지의 약 2.4km 구간이며, 가장 협의의 '종로'는 종로 상가로서 동질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종각에서 세운상가까지의 구간이다. 이 글에서는 도심의 상업과 공업기능을 담지하고 있는 종각에서 동대문까지의 '종로'를 대상으로 고찰해 본다.

2 도심상업지역의 역할

현대 서구 대도시권의 도심은 초기에는 소매-상업지구로 발전하다가 점차 업무-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최근에는 컨벤션-관광-위락기능이 주조를 이루는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지역중심의 도시에서는 도심지역이 소매-상업지구로 발전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지만, 국가중심의 대도시지역의 도심은 행정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부문의 고용확대로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부도심지역이나 근교지역의 엣지시티(edge city)와의 기능

분담으로 인해 전통적인 핵심기능을 모두 다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도심지역은 도시의 가장 오래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의 재개발을 경험하고 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도 고르고 연속적이던 예전에 비해 고도와 경관적 측면에서 훨씬 다양해지고 불연속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구조물철거와 함께 재개발에 대한 압력은 도심지역의 역사적인 건물들의 존속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도심지역의 가장 큰 이점은 접근성(accessibility)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많은 교통노선이 도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발달한 다양한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도심을 활동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전통적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방문객과 관광객이 도심을 드나들었고, 매우 강력한 연계들이 입지한 많은 활동들 사이에 발전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심은 많은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집단과 매우 전문화된 화이트칼라 노동력을 가진, 하나의 고도로 세련된 업무 및 서비스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도심은 그 도시의 정부 기능 중심지, 관광 중심지, 그리고 위락의 중심지가 되었다. 거주활동의 계속적인 원격화로 인해 중산층은 대체적으로 교외화 되었으며 거주지의 분산이 나타나면 그 뒤를 이어 개인서비스위주의 저차 상업 기능이 도심을 빠져나가게 된다.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의류점, 소매 은행업, 레스토랑, 그리고 영화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기능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심은 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능 수행하는 장소이다. 장 고트만(Gottmann, 1972)은 도심의 변함없는 중요성을 아홉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다. 도심 지역은 전체 도시 인구가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한 장소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문화·스포츠 센터들은 물론 대부분의 행정 기능들도 도심에 입지하고 있다. 둘째, 도심지역의 이점을 크게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대면 접촉이 전자·통신하부구조 등의 보완을 받으며 도시전체의 정보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최고 경영자와 주요 의사결정자에게는 상호신뢰와 대면접촉에 의한 정보교환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 번째는 업무 수행환경으로서, 도심의

생산자서비스 등의 연계기능은 주요업무기능의 지원 인력들과 근접해서 있는 데서 발생하는 도심부 입지의 중요한 장점이다. 오늘날에는 교외의 도심이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정도로 경쟁하게 됨으로써 과거 도심이 누려왔던 이익을 잠식하고 있다.

네 번째는 언제나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은 도심지역에만 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심은 대량으로 대기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인력들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도심에서는 다섯 번째 요인인 여가시간을 위한 문화, 위락시설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박물관, 화랑, 고급 레스토랑, 운동경기장뿐만 아니라 극장, 오페라, 그리고 교향악단 등이 대개 도심 또는 도심 근처에 존재하여 문화와 위락의 중심지로서 역할 하게 한다. 여섯 번째는 전문가 컨설팅서비스이다. 도심에서는 의학, 법률, 재정, 정부, 경영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부문에서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금융, 보험 등 자본과 신용 시장의 존재로서 그 자체가 다른 회사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여덟 번째는 고차의 쇼핑시설로서 전통적으로 도심의 업무종사자들이 이용한 가능한 하부 구조의 또 다른 일부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교외화의 영향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교육기관, 도서관, 전문서점, 그리고 미디어센터 등의 다양한 교육과 재교육기회로서, 이러한 기능들은 계속 도심으로 밀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로를 정점으로 하는 서울의 도심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에게 소속감(identity)을 부여하고 관광객에게는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Ford(1974)가 지적한 것처럼 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은 교외나 신도심의 새롭고 고급스러운 쇼핑센터나 신형 고급주택지, 계획적으로 건설된 번화가 등이 대체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도시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처럼 개별 건축물이나 일련의 빌딩군이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도심의 상업지역만큼 도시이미지형성에 깊이 인각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도심의 상업기능은 도심의 존재이유임과

동시에 도시민이 도심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새롭게 계획적으로 건설되는 서울의 신도심과 교외 신도시의 상업지역은 주로 계획된 쇼핑센터와 쇼핑가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체인망과 기업본사의 특성과 이미지를 반영하여 지역과 국가에 따른 차별성이 약하고 상징적 중요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또한 많은 경우에 도시의 활성화와 외부 자본의 성장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의 선전적 효과(Local Boosterism)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종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의 상업기능은 비계획적 상업가로서 도시의 역사성과 도시민의 삶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단층이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적적 변화의 모습이 함께 표현되고 있다.

즉 장소성이 녹아 있는 상업지역이며 도시의 상징적인 핵심지역(cumulative historic shopping milieux and symbolic core)이다. (cf. Scott, 2000, Zukin, 1995).

3. 종로경제경관의 변화상

1) 종로 상업지역의 기원

예로부터 종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조선시대 종로는 나라에 물건을 대는 육의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점들이 열을 지어 있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서울은 태조가 만든 계획도시인데, 북악, 인왕산, 남산, 낙산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안에 궁궐과 사직, 종묘, 육조를 배치하였다. 지형을 보면 남, 북의 산은 높은 반면 동, 서의 인왕산과 낙산은 완만하여 남북방향보다는 동서방향으로의 성곽 내외부의 연결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내의 평탄지의 중심에 종로라는 동서방향의 주생활 축이 형성된 것이다. 종로 북측에는 좋은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이었으므로 관청과 고급주택가가 형성이 되었고 남측 남산의 북사면에는 서민주택가가 형성되

었다. 북촌과 남촌이 만나는 종로는 상업기능을 위한 최적지였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대동법의 확대 실시와 유통경제의 발달로 서울은 상업도시의 면모를 갖게 되었고 그 중심인 종로는 더욱 번성하였다. 일제시대에는 남대문, 명동 등 청계천 이남의 일제에 의해 개발된 상권에 대항하여 끝까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곳이 종로였다.

조선이 처음 건국되었을 때부터 경복궁 앞 큰길이자 서울 4대문의 심장부에 위치한 종로는 지리상 정치와 문화,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종로라는 이름은 지금의 종로 1가에 아침, 저녁으로 도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알려주던 '종루'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종로가 조선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은, 정종 원년인 1399년 종로 사거리에 800여칸의 대규모 국설시장인 '시전'이 생기면서부터이다. 시전 상인들은 '행방세'라는 세금 내는 대신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독점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무허가 노점인 '난전'을 막을 수 있는 '금난전권'도 가지고 있었다.

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의전이었는데, 육의전은 비단, 무명, 명주, 종이, 모시, 배, 생선을 파는 가게들이다. 특히 이 시전들은 전국 각지의 상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손님들로 넘쳐나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금 종로 거리에서 옛 육의전의 자취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종로 1가 보신각 부근에 서 있는 '명주 전골'이라는 뜻말은 이곳이 명주전이 있던 자리임을 말해 주고 있다.¹⁾

종로의 현대적 백화점은 1931년에 문을 연 '화신'과 '신신'이 최초의 백화점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유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백화점은 지금 다 없어지고 제일은행과 삼성타워가 대신해서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종각에서 시작해서 종로3가 영화권역까지 밤마다 펼쳐지는 종로의 야시장은 광목으로 포장을 치고 전등하나를 켜고 장사를 하였다. 이 전통은 오늘날의 노점상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시장권은 현재의 상업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종로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

1) 지금도 이 일대에는 20여 곳의 주단 가게가 밀집해 있어 상업기능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키고 있다.

2) 종로 상업지역의 변화

서울의 거리는 종로를 중심으로 물길과 지형에 순응해서 펼쳐진 나뭇가지 형태였다. 일제 강점후 2년 뒤 총독부의 '지구개정사업'에 의해 서울의 가로는 격자형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종로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상업가로의 중심성에 대한 침해가 시작된다. 먼저 남대문시장, 명동시장 등 일제에 의해 개발된 청계천 이남의 상권의 도전이 시작된다. 종로는 해방후 1960년대까지는 서울의 중심상권으로 자리잡았으나,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울의 경제력이 증대하면서 서울의 면적이 급속히 확장되어 갔다. 여전히 종로는 예전의 명성을 잃지 않고 입지적 관성을 유지하며 상업지역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나 그 위치를 볼 때, 더 이상 종로는 서울의 중심이 아니다.

1970~80년대 들어서면서 종로의 쇠퇴는 확연히 감지된다. 식민지시대를 지켜온 건축물들은 이제는 낡은 재개발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본격적인 강남 개발과 함께 새로운 상권은 강남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었다. 강홍빈은 종로 상업지역의 쇠퇴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 '한강의 기적'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 지역의 황금기는 지난다. 구매력을 가진 고객은 강남으로 떠나고 돈줄 역시 여의도로 옮겨 버린다. '민중문화인'은 인사동, 낙원동으로 옮겨가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신촌 등지로 분산되어 버린다. 압구정동에 고급 상권을 빼앗기고, 대학가와 아파트촌 슈퍼마켓에 저가시장을 잠식당한 이 지역은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더 경쟁력을 잃는다. 편의점, 양판점, 카테고리 킬러 등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광역화되는 상권을 장악하고, 대기업과 외국자본까지 밀려들어오면서 위상은 한층 더 위축된다.” (강홍빈, 1998, p. 195.)

이 시기의 정부의 도심발전의 억제정책을 보면, 1972년 '특별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개발촉진지역(강남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면서 강북에서의 각종 시설의 시·

증축을 억제하며 백화점, 도매시장, 공간, 호텔, 유흥업소 등의 신규허가도 억제한다. 1972년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의 강남이전을 필두로 하여 사대문안의 학교중에서 소위 명문고 13개교가 강남으로 이전하였다(강홍빈, 1998, p. 224).

또한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북규제정책은, 1) 1972년 강북지역에 백화점과 유흥업소의 신규허가 중지, 2) 1974년 학교신설 금지, 3) 1976년 도심의 사설학원 신설금지, 4) 1977년 도심의 중·고교의 강남이전 장려책 발표(김형국, 1997, p. 258) 등이 있으며, 이전적지는 대부분 재벌에게 인수되어 축성경쟁의 터가 되었다.

따라서 종로지역은 그 동안 강북 집중억제 정책에 따라 강남에 업무중심지의 위상을 잃게 되었으며, 철거재개발 일변도의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지역이 낙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에 도심부는 약 8만개의 고용이 감소하고, 5만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개발이 정체되고, 교통, 소음, 매연등 도심환경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상의 종로상가 쇠퇴의 원인을 보면, 1) 서울시가지의 광역화, 2) 강남개발, 3) 시내 간선도로의 상가화, 4) 지역생활권별 대규모 시장의 형성, 5) 백화점의 교외화, 6) 서울 남서축의 성장과 신도시의 건설, 7) 정부의 도심(재)개발 억제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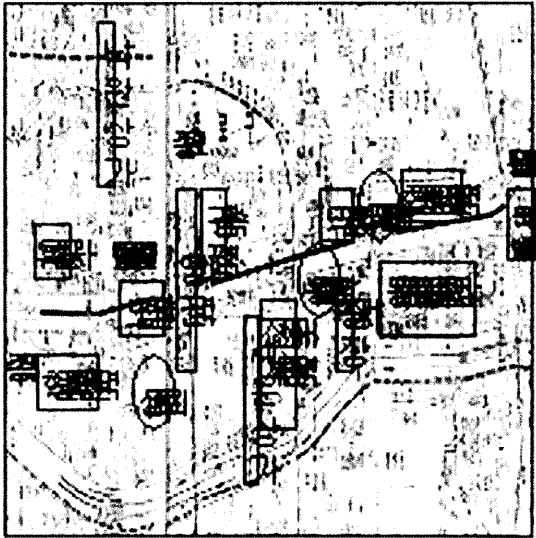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시대와 현대의 종로의 노점

3) 종로의 경제권역

종로경제는 이러한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중요경제권역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종로경제의 핵심은 더 이상 서울의 상업경제의 중심이 아니다. 상업경제는 강남으로, 신촌으로, 여의도로, 영등포로 분산되어 갔다. 이제는 도심, 부도심, 소도심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심지 이론의 시대는 지나가고, 대도시의 지역들이 상호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네트워크(network)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종로의 경제활력은 전통적인 상업경제보다는 오랜 장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개성화되고 파편화된 소비의 시대에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상징경제 혹은 문화경제가 이끌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로의 경제권역을 살펴보면, 1) 도심상업·업무권역, 2) 도심문화벨트, 3) 도심형 산업권역, 4) 도심주변부형 도소매업권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 종로지역의 업종분포

1) 도심상업·업무권역

- 종로 2, 3가의 학원, 유학원, 노점상권역
- 낙원상가, 관수동의 각종상패·트로피제작상

2) 도심문화벨트

- 영화권역
- 갤러리, 전시장, 이벤트홀 등

3) 도심형 산업권역

- 세운상가 및 그 주변의 전기·전자제품, 각종기계 부속품 공구상가권역
- 예지동·봉익동의 금은보석시계 장신구 등 귀금속권역

4) 도심주변부형 도·소매업권역

- 동대문광장시장의 모직물, 원단, 한복의류상
- 창신동의 문구·완구, 신발 도매상가,
- 종로 5, 6가의 약국, 한의원, 한약제, 농약종묘상, 의약품도매상 권역



〈그림 3〉 종로지역의 경제권역

종로 상업지역은 인접한 태평로에 자리잡고 있는 대기업들의 본사와 함께 도심의 인쇄 출판업,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으로 일컬어지는 재래 패션시장, 청계천시장으로 알려진 전문상가로 등과 함께 생산·유통·소비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상가집적체이다. 이러한 비계획적 상가집적체(Unplanned Shopping Clusters)로는 아마도 세계적 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이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세운상가 주변의 전기·전자제조기능과 이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 하청·연계구조에 얽힌 다양한 제조업 기능과 유통기능이 도일한 공간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새로운 산업집적체(new industrial clusters)'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지역은 '구조적으로 진화하지 못하여 기능적, 물리적, 심미적으로 부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도시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상가의 역사가 50년 이상이 되어 건물이 낡고, 퇴락하고, 고밀도로 밀집되어 있어 화재와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기도 하다.

하지만, 종로경제의 가장 큰 강점인 '혼성의 도시(Heteropolis)'적인 특징은, 세대가 만나고, 계층이 만나고, 다양한 경제부문이 융합되어 사회적 역동성을 강화해주고 혁신적 활동의 계기가 된다. 단순한 단기적 상업경제의 측면에서는 종로의 상대적 쇠퇴가 짐작되어지지만, 역사성과 장소성, 잡종성(hybridity)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의 기초는 무척 튼튼하고 서울 어느 지역과 견주어 보아도 경쟁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종로지역의 세대적, 계층적, 경제부문적 포용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고, 첨단산업과 전통문화 콘텐츠가 결합되는 현대의 경제구조에 가장 큰 경쟁력을 제공해주는 지역기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종로지역은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해주고 역사성과 문화성을 대표하는 곳이다. 600여년 동안 서울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역사를 담고있으며, 사무업무, 쇼핑, 주거의 중심에서 이제는 역사성과 장소성(placeness)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과 여가활동의 중심지, 즉, 뉴욕 맨해튼의 소호지역(SOHO)처럼 장소의 역사성과 사회활동의 뿌리내림(embeddedness)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상징경제와 문화경제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4. 상업경제에서 상징경제로

도시경제(Economy of City)의 중심은 상업경제 혹은 산업경제에서 문화경제(Cultural Economy of City)로 이전하고 있다 (Crewe, 1996; Kearns and Philo; 1993; Scott, 2000).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의 문화경제는 국지적, 세계적 연계망에 연결되어 국지적 집적을 통해 발전하며, 도시경제활동 또한 장소성에 바탕을 둔 문화생산의 혁신창출 능력에 대한 의존도를 갈수록 증대시키고 있다. 도시의 문화경제 집적지에서는 상호 합리적인 신뢰와 제휴관계에 바탕으로 하는 학습활동이 활발하며, 생산-분배-소비가 네트워크화된 국지적 경쟁우위 창출한다. LA의 영화사업, 런던과 뉴욕의 극장, 샴페인지방의 포도주, 이태리 플로렌스지방의 가죽산업 등에서 보듯이 장소, 문화, 경제는 상호 공생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문화산업은 국지적 집적(localized clusters)에 의해 생산되고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크므로, 종로와 같은 도심지역의 발전은 상업경제보다는 문화경제에 의해 기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세계적인 공간분업과 지역적 전문화 등의 논리로 인해 낮은 임

2) 여기에서는 연구·개발활동과 생산활동, 서비스활동 등이 지역내에서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공간적으로 집적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곳에 입지한 생산, 서비스활동은 불자, 정보, 인적자원, 기반시설 등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학습의 과정을 통해 독특한 지역산업문화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간다(Granovetter, M., 1985).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이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사성과 관성(inertia)으로 인한 장소성이다. 정치, 사회학분야에서 논의가 시작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전개는 주로 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의 원천으로서, 즉 광범위한 의미의 성숙사회 성장의 기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신산업지구인 Silicon Valley의 경우, 이방인의 세계이며, 가족적 유대도 역사적 전통도 공동체의 형성도 매우 미약하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에 근거한 전략적 제휴와 연합, 파트너십, 경쟁과 협력의 구조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cf., Cohen and Fields, 1999). 현대 산업경쟁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은 '윤리적 자원(moral resources)'도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도 '깊은 신뢰(deep trust)'(Coleman, 1990; Fukuyama, 1995; Putnam, 1993) 이기보다는 국지적 산업집적지 내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의 원천이 되는 사회제도간의 생산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문화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은 소위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공동간의 신뢰나 묵시적 규약의 네트워크'이기보다는, 개인과 기업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사회제도의 생산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국지적 산업집적지 내에서 혁신의 확산과 지식의 학습을 통한 공생의 네트워크이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두터움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신산업지구에서의 신뢰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동체로부터 발원하는 것이기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경쟁력과 수행력을 통해 공고해진다.(Gertler, M., 1997; Porter, 1998b; Sandefur and Laumann, 1998; Scott and Paul, 1990).

금, 저렴한 지가, 시장의 규모 등이 중요한 도시에서의 경제적 군집의 요소이었다면, 현대의 지식기반 경제활동은 도시의 문화경제, 즉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 복합체와 장소이미지와와의 결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기반으로 하여 점점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시키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형성된 국지적 장소내의 사회적 자본²⁾을 바탕으로 하여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군집한다. 특히 래쉬와 어리(Lash and Urry, 1996)는, 1) 자신의 아비투스³⁾를 도시에 강제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구성 2) 이동패턴과 거주자들의 기획력 3) 한 장소의 현재적 이미지와 잠재적 이미지 4) 기존 활용 가능한 환경 5) 상이한 사회집단들의 심미적 관심 6) 지역의 기업가 정신 7) 지방정부의 주도면밀한 기획 등 여섯 가지 요인을 그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나아가 문화경제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 위락, 오락산업 등 다양한 인접활동과 밀접한 창구효과를 가짐으로서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동시에 연관산업간의 인력네트워크가 분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하게 작용함에 따라 주로 대도시내에서 장소성과 역사성이 풍부한 지역에 경제활동의 집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로의 역할은 강남이나 여의도에 상권을 빼앗기고 쇠락해가는 구도심상권이 아닌, 새로운 네트워크중심의 대도시지역에서 장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 연령, 지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잡종(hybrid) 문화경제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홍빈, 1998 「근대화의 도시풍경」, 한국도시연구소편, 『한국도시론』, 서울: 박영사.
 김창석외, 2001 『도시중심부연구』, 서울: 보성각.

-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종로구, 1998 『종로구 백서』, 종로구.
- Cohen, S. and Fields, G., 1999, "Social Capital Gains in Silicon Valle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1(2): 108-130.
- Coleman, J.,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ewe, L., 1996, "Material culture: embedded firms, organizational networks and the local indent economic development of a fashion quarter," *Regional Studies*, Vol. 30: 257-72.
- Ford, L.R., 1974, "Historic preservation and the sense of place", *Growth and Change*, Vol. 5(2): 33-37.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구승회 역, 1998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Gottmann, J., 1972, "Urban centrality and the interweaving of quaternary activities," in G. Bell and J. Tyrwhitt, eds., *Human Identity in the Urban Environment*, Baltimore: Penguin.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 Kearns, G. and C. Philo, eds.,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Oxford: Pergamon Press.
- Lash and Urry, 1996, *Economies of Sign and Space*, London: Routledge.
- Porter, M., 1990, "The role of location in competition," *Journal of Economics of Business*, Vol. 1: 35-39.
- Porter, M., 1996, "Competitive advantage, agglomeration economies, and regional policy,"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19(1,2): 85-94.
- Putnam, R.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서울 : 박영사.
- Sandefur R. and Laumann, E.O., 1998. "A Paradigm for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4: 481-501.
- Scott, A., 2000,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London: Sage.
- Scott A.J., Paul A.S., 1990, "Collective order and economic coordination in industrial agglomerations: the technopoles of Southern California," *Environment and Planning C*, Vol. 8: 179-193.
- Weaver, C.L. and Duerksen, C.J., 1977, "Central business district planning and the control of outlying shopping centers," *Urban Law Annual*, Vol. 14: 57-79.
- Zukin, S., 1995, *The Cultures of Cities*, Oxford: Blackwell.